

16·17세기 저고리 형태에 관한 연구

-출토복식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의상학과
 시간강사 장인우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이춘계

目 次

I. 서 언	Ⅲ. 16·17세기 저고리의 특징
Ⅱ. 16·17세기 저고리 형태와 유형	Ⅳ. 결 언
1. 저고리의 형태	참고문헌
2. 각 부분의 구성요소	ABSTRACT
3. 저고리의 유형분류	

I. 서 언

저고리는 한국복식가운데 남녀노소,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착용하는 기본적인 일상복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의복중 하나이다. 또한 저고리는 시대에 따라 형태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준척도가 되며, 시기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특히 실물복식인 출토복식을 통하여 저고리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은 선행연구¹⁾에서 추정·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목판깃저고리·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가 조선중기에 공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토복식 저고리의 형태를 살펴본은 실물자료

가 없는 이전의 구성과 이후시대의 저고리의 전개 과정을 유추·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하다. 출토복식이 집중되어 있는 16·17세기 저고리의 형태는 어떠한 변화를 갖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유형적으로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저고리변화의 전개·발달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여자 저고리변천에 대한 연구는 저고리의 옷깃·소매·옷깃과 섶 등을 포함한 그 형태와 유형에 대하여 이미 많이 언급²⁾되었다. 그 대부분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연구로 특정한 요소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서 실물유적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1) 高福男, '出土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320.

金文子, '朝鮮時代 저고리 깃에 대한 研究', "服飾5호", 1983.

2) 김문자, 앞글.

白錦鉉, '옷깃과 옷섶의 形態變化에 대한 研究', "服飾6호", 1983.

金榮子, '朝鮮時代 여자 저고리소매에 관한 研究', "여성문제연구소" 13.

16·17세기를 연구하는 것은 저고리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실물자료인 16·17세기 출토 복식이다. 당 시대로 추정되는 출토복식저고리는 전국에 약 80여점이 산재되어 있으며, 본 소고에서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인 20여점의 실물자료와 보고서 및 논문 등의 1차자료를³⁾ 통하여 조사하였다.

II. 16·17세기 저고리의 형태와 유형

출토복식 저고리에 대한 앞선 연구로는 김동욱⁴⁾·고복남⁵⁾·박성실⁶⁾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김동욱·박성실은 저고리를 길이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16·17세기 저고리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물자료와 보고서를 통하여 출토 복식에 나타난 저고리의 형태를 옷깃별로 분류하였으며, 옷깃별 저고리의 변화 및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그 시대를 3시기로 크게 나누어 16·17세기를 16세기전반이전,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전반까지, 17세기후반이후로 그 시기별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16·17세기 출토저고리는 지역적으로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기도와 충청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별히 16세기와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80여점에 달한 출토저고리 가운데에는 파손 등으로 조사가 되어있지 않은 것도 있다(표 1 참조).

〈표 1〉 출토 저고리의 깃종류 및 출토지

	출토지명	추정연대	저고리의 수	깃의 종류	보 고 서
1*	홍계강묘	1450년대추정	3	목판깃-3	80, 박성실 단국대학교박물관
2#	정응두묘	1502~1572(배위 1509~1580)	14(16)	목판깃-11(2) 칼깃-3	1988 박성실 단국대학교박물관
3#	이이언옹 및 청주한씨	충종-선조 (1600년대추정)	16	목판깃-16	1992,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 복식연구, 세종대학교박사학 위논문
4*	순천김씨	1537~1594	4	목판깃-4	
5*	안동김씨 김침의 딸	1541~1560~ 158(9)추정	2	목판깃-2	1987 김동욱, 충북대학교박 물관보고서

3) 金東旭, '任亂前後 出土服飾', "任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 博物館 報告書, 1983.
安熹菡 외3인, '重要民俗資料 제112호 장흥임씨 壽衣類의 保存處理', "保存科學研究" 제6집, 1985.
沈富子·全惠淑, '文懿新墓의 出土服飾', "服飾10호", 1986.
金美子·柳喜卿, '出土服飾', "진주하씨출토문헌과 복식보고서", 김동바우박물관, 1991.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4) 김동욱, 앞글, 105. 저고리의 형태에 여러가지 애매한 것이 있으며, 그 중 긴저고리와 옆이 터진 저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고리의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5) 고복남, '朝鮮中期的 服飾變遷에 대한 要因', "淑大論文集 25집", 460, 1984. 조선중기 의복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한 유형의 옷에서 여러 양식이 나타난 것으로 저고리의 경우 같은 사람의 것에서도 다양하다.
6) 박성실, 앞글, 저고리의 형태를 길이에 의해서 분류하여 A형은 短저고리형 40-50cm, B형은 옆이 막힌 바지리리형 60-70cm, C형은 옆이 트인 긴저고리 80cm전후의 長저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6*	김대경의 처 원주원씨	1632~1695	1	당코깃-1	
7#	문익신묘	1556~1645	3	목판깃-2 칼깃-1	1985심부자, 전혜숙 동아대 학교박물관
8*	김덕령장군 묘	1567~1598	1	목판깃-1	광주, 충장사
9@	구례손씨묘	1576~1626	4	목판깃-1 칼깃-2 당코깃-1	1979 김동욱·유송옥 충북대 박물관 보고서
10*	장홍임씨묘	1590	2	칼깃-2	안희균외3인, 1985 보존학회 지
11*	김위묘	임란전후	2	칼깃-2	1980 김동욱·유송옥, 충북 대학교박물관
12@	전박장군묘	임란전후	13	목판깃-1 칼깃-4 당코깃-4	1980 김동욱·유송옥, 충북 대학교박물관
16*	진주하씨	(1580~1646추정) 17세기 임란직후	9	목판깃-9	1989, 김비자·유희경 건들 바우박물관
14*	양천허씨	1630~1600	4	당코깃-4	1992, 고부자, 단국대학교박 물관
15#	홍우협묘	1655~1691	5	칼깃-2 당코깃-3	1983, 김명숙, 충북대학교

* 1종류/출토지

2종류/출토지

@ 3종류/출토지

그 중 16·17세기의 목판깃저고리는 총54점으로 숫적으로 지배적이며, 시기적으로는 15세기인 홍계강묘에서부터 17세기전반의 진주 하씨의 묘까지 지속적으로 출토되었다. 칼깃저고리는 16점이며, 16세기초기인 정응두묘에서부터 17세기후반의 홍우협의 묘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양은 비교적 적다. 당코깃저고리는 13점으로 시기는 16세기후반인 구례 손씨묘에서부터 17세기후반인 홍우협의 묘에서 출토되었다(표 1 참조).

〈표 1〉에 실린 각 저고리의 명칭은 보고서와 논문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였다. 특히 홍계강·정응두·이연웅·양천허씨의 유물은 박성실의 논문 자료를 인용하여 그 명칭을 저고리 1·2·3 등으로 기록하였으며, 이후의 출토지명은 번호로 대신한다.

1. 저고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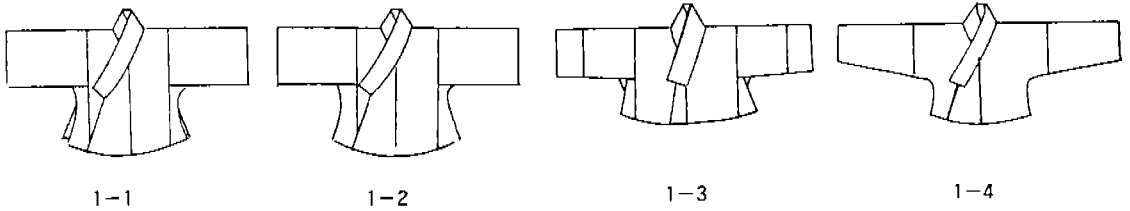
1) 옷깃별 형태

가. 목판깃저고리

목판깃저고리의 형태는 구성에 따라 세종류로 나타나며 그 출토지는 〈표 2〉와 같고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목판깃저고리의 형태를 분류하는 요소는 목판깃·깃·소매·셔의 구성외에 무의種類와數, 트임의有·無를 들 수 있다. 목판깃저고리1-1형은(그림 1) 목판깃과 깃·소매·셔의 구성요소외에 1개의 무와 트임이 있는 저고리로서 전 박장군·정응두의 묘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수는 5점이다. 재질은 문양단이나 유색의 옷감이며, 겹으로 구성된 것이 공통적이다. 목판깃저고리 1-2형은 1-1형과 유사하나 트임이 없는 저고리

로써 구례 손씨·홍계강·이언웅의 묘에서 출토 되었으며, 그 수는 13점이다. 목판깃저고리1-3형은 다른 저고리와 비교해 볼 때 첫째로 무가 2개로 구성된 것과 둘째로 옷깃·섶·무·끝동에 이색(異色)천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 그 분포는 순천 김씨·안동 김씨·전 박장군·정응두·홍계강·이언웅의 묘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그 수는 19점에 달하고 있다. 또 이 유형의 변형으로 소매의 형

태가 곡선인 저고리가 있다.(문익신 출토) 이와같이 목판깃저고리의 구성은 옷깃을 비롯한 겨드랑이하 옆선과 소매·무 등의 각 세부구성부위가 직선이다. 그러나 목판깃저고리1-4형은 진주 하씨의 출토복으로 진동이하의 겨드랑이가 곡선으로 파였고 수구넓이가 진동넓이보다 좁아 배래는 사선을 이룬다.



(그림 1) 목판깃저고리의 형태

<표 2> 목판깃저고리의 형태와 출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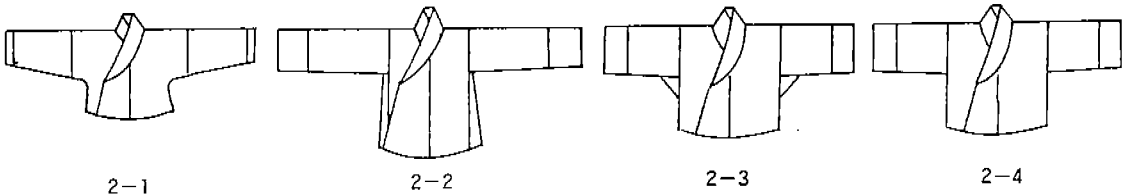
1-1		1-2		1-3		1-4	
출토지	저 고 리	출토지	저 고 리	출토지	저 고 리	출토지	저 고 리
전 박장군	갈색목단접당 저고리	구례 손씨	남명주송 저고리	순천 김씨	갈색저고리	진주 하씨	겹저고리
전 박장군	갈색운문단 저고리	홍계강 묘	저고리 1	순천 김씨	갈색저고리	진주 하씨	모시 석삼
전 박장군	아청색소화당 초문저고리	홍계강 묘	저고리 2	안동 김씨	검삼수회장 저고리	진주 하씨	무명겹저고리
정응두	저고리 12	홍계강 묘	저고리 3	전 박장군	소색명주삼수 저고리	진주 하씨	무명적삼 1
정응두	저고리 13	이언웅 묘	저고리 6	정응두 묘	저고리 1		무명적삼 2
			저고리 7		저고리 2		무명적삼 3
			저고리 8		저고리 3		무명적삼 4
			저고리 9		저고리 4		무명적삼 5
			저고리 10		저고리 5		무명적삼 6
			저고리 11		저고리 6		
			저고리 12		저고리 7		
			저고리 13		저고리 8		
			저고리 14		저고리 9		
					저고리 10		

				이언용 묘	저고리 1		
					저고리 2		
					저고리 3		
					저고리 4		
					저고리 5		
				문익신 묘	명주잔누비 저고리		
				문익신 묘	명주누비회장 저고리		
				문익신 묘	무명숨저고리		
				김덕령 장군묘	무명숨저고리		

나. 칼깃 저고리

칼깃저고리는 세형태가 있으나 한 형태(2-1)를 제외하고는 각 출토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그 대표적 형태는 칼깃저고리2-1형이며 옷깃이 칼깃인 점을 제외하고 무가 없는 점이 목판깃저고리1-4형과 같다. 칼깃저고리2-1형은 구례 손씨·전 박장군·홍우협·장흥 임씨의 묘등 여러 곳

에서 출토되었다. 칼깃저고리2-2형과 칼깃저고리2-3형의 수가 적은 것은 목판깃저고리1-4형에서 칼깃저고리2-1형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추측된다. 특히 출토지 7의 칼깃저고리는 옷깃을 제외하고는 목판깃저고리1-3형과 유사하나, 끝동의 배래가 곡선으로 처리되어 역시 과도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칼깃저고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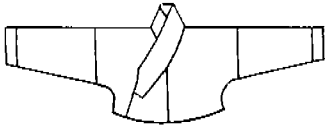
<표 3> 칼깃저고리의 형태 및 출토지

2-1		2-2		2-3		2-4	
출토지	저 고 리	출토지	저 고 리	출토지	저 고 리	출토지	저 고 리
구례 손씨	소색명주 저고리	전 박장군	소색무명적삼	김위	삼베적삼	정응두	저고리 5
구례 손씨	남색무명 저고리					정응두	저고리 6
전 박장군	백색무명 겹저고리					정응두	저고리 7

전 박장군	백색무명접저고리					문익신묘*	무명솜저고리
전 박장군	백색무명적삼					장흥임씨	접유저고리
홍우협	소색명주누비 옆트임고리						

다. 당코깃 저고리

당코깃저고리는 다른 옷깃저고리와는 달리 한 형태로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구성은 당코깃·길·소매·섶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출토지와 형태는 <표 4>와 같다. 저고리의 분포는 구례손씨·전 박장군·양천 허씨·홍우협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3-1

(그림 3) 당코깃저고리의 형태

<표 4> 당코깃저고리의 형태 및 출토지

3-1	
출 토 지	저 - 고 리
구례 손씨	갈색솜저고리
전 박장군	갈색명주접저고리
	갈색명주접저고리
전 박장군	백색명주저고리
양천 허씨	삼회장 저고리
양천 허씨	반회장 저고리
	삼회장 저고리
	누비 저고리
홍우협	연갈색화점삼회장저고리
홍우협	소색문주원화점저고리
홍우협	소색명주누비저고리

이와같이 각 저고리의 형태를 옷깃에 의하여 나타난 유형을 그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시기별 형태

가. 16세기전반까지의 저고리 종류

이 시기 저고리의 출토지는 1·2·3이며, 그 종류는 목판깃저고리와 칼깃저고리이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출토지-표 1 참조, 형태-그림 1·2 참조).

• 목판깃저고리

이 시기의 목판깃저고리는 출토지 1·2·3에서 모두 출현되고 있으며, 출토지 1과 3에서는 목판깃저고리1-2형(그림 1)이, 출토지 2에서는 목판깃저고리1-1형과 1-3형이 출토되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목판깃저고리1-1·1-2·1-3형이 존재하지만 출토지별로 각 목판깃저고리1-2형과

목판깃저고리1-1·1-3형이 다르게 출토되었다.

• 칼깃저고리

이 시기의 칼깃저고리는 출토지 2에서만 출토되었고 그 형태는 2-4형이다.

나. 16세기후반에서 17세기전반의 저고리 종류

이 시기에는 여러 출토지 4·5·6·7·8·9·10·11·12·13에서 각종 저고리가 출토되었으며, 그 종류는 목판깃·칼깃·당코깃저고리 등이며, 각 저고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목판깃저고리

이 시기에 있어서 목판깃저고리는 출토지 4·5·7·8·9·12에서 나타나며, 출토지4에서 목판깃저고리1-1형과 1-3형이, 출토지5에서 목판깃저고리1-3형이, 출토지7에서 목판깃저고리1-3형이, 출토지8에서 목판깃저고리1-3형, 출토지9에서 목판깃저고리1-2형이, 출토지12에서 목판

깃저고리1-1·1-3형이 출토되었다. 전지역에서 목판깃저고리는 출토지 11지역 가운데 7지역에서 나타났으며, 그 형태는 목판깃저고리1-1·1-2·1-3형이 혼용되며 목판깃저고리1-3형이 지배적이다. 목판깃저고리가운데에서도 대개는 두가지 종류의 형태가 출현했으며, 목판깃저고리1-3형은 전지역에서 출토되었다.

• 칼깃저고리

이 시기의 칼깃저고리는 출토지 7·9·10·11·12 등에서 나타나며, 그 형태는 출토지 7에서 칼깃저고리2-4형, 출토지 9에서 칼깃저고리2-1형이, 출토지 10에서 칼깃저고리2-4형이, 출토지 11에서 칼깃저고리2-3형이, 출토지 12에서 칼깃저고리2-1형이 출토되었다. 칼깃은 목판깃과는 달리 한 출토지에서 한 형태가 나타나고, 칼깃저고리2-3·2-4형과 칼깃저고리2-1형이 혼용되며 칼깃저고리2-1형이 지배적이었다.

• 당코깃저고리

이 시기부터 당코깃저고리가 출토되었고, 출토지 6·9·12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모두 당코깃저고리3-1형이다.

다. 17세기후반이후의 저고리

17세기에는 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가 함께 출토되었고, 출토지 14·15이다.

• 칼깃저고리

17세기에는 출토지 15에서만 칼깃저고리가 출토되었고 그 수는 18점 가운데 2점을 이었으며, 칼깃저고리2-1형과 2-3형이다.

• 당코깃저고리

출토지 6·14·15에서 당코깃저고리가 나타나며, 그 수는 10점 가운데 8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당코깃저고리3-1형이다.

이상과 같이 16·17세기로 추정되는 저고리를 살펴보았으며, 그 시기별 저고리의 종류와 그 형태는 <표 5>와 같다. 목판깃저고리는 숫적으로 16세기 전반에서 집중되어 있으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목판깃저고리1-1·1-2·1-3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토되었으나 시대가 가장 내려온 17세기 진주 하씨의 저고리에서는 이전 저고리의 형태와는 다른 목판깃저고리1-4형이 출토되었으며, 17세기 후반에는 출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는 착용빈도가 적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칼깃저고리는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에 집중되었으며, 16세기 전반에는 칼깃저고리2-3형으로 목판깃저고리1-3형에 옷깃만 칼깃인 것으로 보아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부터는 칼깃저고리2-1형으로 집중되어 칼깃저고리의 형태가 정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코깃저고리는 16세기 후반부터 출토되었으며, 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출토복식의 출토저고리의 형태 및 출토지·추정연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저고리의 형태와 추정연대에 의하면 목판깃저고리는 16세기 이전부터 17세기 초까지, 칼깃저고리는 16세기 초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당코깃저고리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

<표 5> 저고리의 시기별 종류 및 형태의 분포

	목판깃저고리		칼깃저고리		당코깃저고리		출토지별 저고리종류별 수		
	형태	수	형태	수	형태	수	1/출토지(%)	2/출토지(%)	3/출토지(%)
16전반 이전	1.2.3.	30/33	3	3/33	-	-	4(80%)	1(20%)	-
16세기후반~ 17세기전반	1.2.3.4.	24/40	1.2	11/40	1	5/40	3(50%)	1(17%)	2(33%)
17세기후반	-		1.2	2/10	1	1/10	2(70%)	1(30%)	

반까지 출토되고있다. 이로써 이러한 형태의 저고리 착용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형성시기가 목판깃저고리·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의 순으로 특히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전반 사회에서 이 세 유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 시기가 저고리의 유형이 교체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 목판깃의 경우는 17세기후반기에, 칼깃저고리와 당코깃저고리는 16세기후반에 각 유형의 변형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각 유형의 형성 및 쇠퇴의 과도기적인 시기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저고리의 유형과 출토지의 관계를 살펴볼 때<표 5> 한 유형의 저고리가 출토되는 경우(출토지1·4·5·8·10·11·13·14)가 대부분이며, 두 유형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출토지3·6·15)와 세유형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출토지9, 12)가 있다. 출토분묘는 한 개인이나 부부합장의 묘를 의미하며 이를 한 집안으로 생각할 때 저고리의 유형의 풍습은 각 집안내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으나, 한 집안에 저고리의 여러 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유형이 아직은 신분·계급·학과·지역적 상징보다는 전반적인 유행에 의한 것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볼 때 이 시기의 저고리는 한 가문에서 한 유형뿐 아니라 여러 유형이 동시에 착용되었으며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 저고리의 유행과 함께했다고 생각한다. 16세기후반에서 17세기전반의 출토지별 유형을 살펴볼 때 저고리의 유형정착의 시기로써 전환기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각 부분의 구성요소

현대 저고리는 옷깃·길·소매·섶·고름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벽화에 나타난 삼국시대의 저고리는 기본형으로 선(襟)·길(胴)·소매(袖)의 구성과 여밈에서 帶를 사용하였다. 15세기 악학례법에 나타난 저고리 가운데 藍赤古髻는 옷깃·길·소매·무·섶으로 구성되어 옷깃·섶·무 등의

요소가 부가되었다(표 6 참조).

16·17세기 저고리는 조선초기(15세기)저고리와 동일 구성요소로 이루어졌으나 각 구성요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고리의 종류도 또한 다양화 된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6·17세기의 저고리의 구성요소에 나타난 형태를 요소별로 살펴 목판깃·칼깃·당코깃저고리가 각 각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저고리의 구성요소에 의한 형태변화를 살펴본은 유형분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고리 결무의 발전형이 결마기로 같은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란 저고리의 길(胴)과 소매(袖)의 구성선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또 결마기는 길과 소매의 구성선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구분하여 무가 장식적 요소외의 구성요소로써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저고리 구성요소의 시기별 변화

	상대	15세기	16·17세기	18세기	현대
선(襟)	○				
옷깃		○	○	○	○
소매	○	○	○	○	○
길(胴)	○	○	○	○	○
섶		○	○	○	○
무		○	*·○		○
결마기			*	*	
고름		○	○	○	○
대	○				

*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것
○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

<표 6>과 같이 16·17세기의 출토저고리는 섶·무·트임 등으로 세부요소가 부가되었고 소매·옷깃의 형태에서 다양한 변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저고리 구성요소의 정의는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생략하였으며, 구성요소는 고복남이 정한 징의를 따랐다. 16·17세기 저고리는 길(胴)·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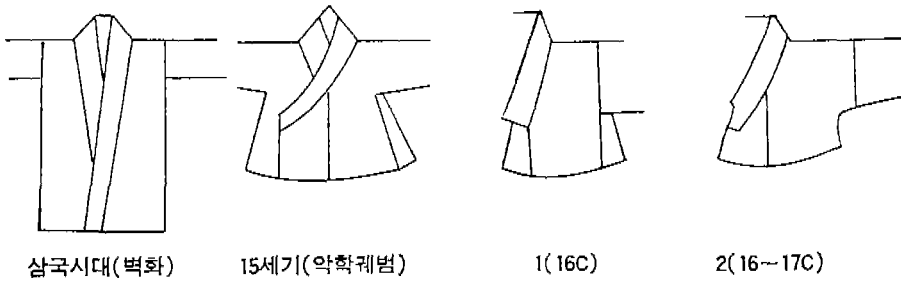
(袖)·깃(領)·부(褙)·옷고름·동정(同正)·섶(袷)·진동·뒷중심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구성요소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옷깃·길·소매·무단을 언급하였으며, (동정은 그 길이에 있어서는 신체적 제한성으로 시대에 관계없이 변화가 없으나 그 나비는 길의 나비에 따라 변화하지만 저고리의 형태구분요소는 아니라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길(胴)의 종류

길(胴)은 저고리에서 몸통을 감싸는 부위로 삼

국시대에서는 진동선 아래가 직선으로 이루어졌다. 15세기 악학궤범에 나타난 저고리의 경우도 그림 자체는 사선으로 그려졌지만 진동선과 함께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저고리에 의하면 길의 형태는 진동선에서 밑도련선까지 직선으로 이루어진 1형과 진동선아래의 부위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2형으로 (그림 4)와 같이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1형은 어깨선에서 밑도련까지 동일나비인 직선형의 길로, 2형은 겨드랑이 아래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길에 무가 첨가된 형으로) 사선형의 길(胴)로 구분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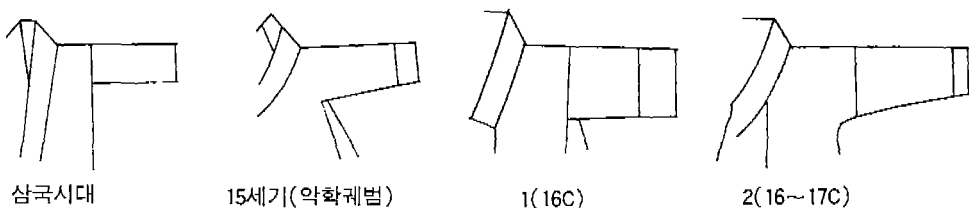


(그림 4) 저고리 길(胴)의 형태와 종류

2) 소매(袖)의 종류

소매는 벽화와 악학궤범에 의하면 진동과 수구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직선형이며, 출토복식에서는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없는 1형과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큰 2형으로 대별된다. 또한 1형의 변형으로써 출토지 12의 백색무명적삼과 같이 긴 소매도 나타난 것도 있다(박장군 소재무명적삼) 또 일부 문익신의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는 수구의 부

분이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저고리의 소매의 일반형이 아닌 포(袍) 등에서 일시적으로 변형된 소매가 아닐까 생각한다. 소매 1형과 같이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거의 없는 소매를 직선형 소매로, 또 소매 2형과 같이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큰 소매를 사선형 소매로 구분한다. 소매는 1·2형에서 직선과 사선으로 배례에 곡선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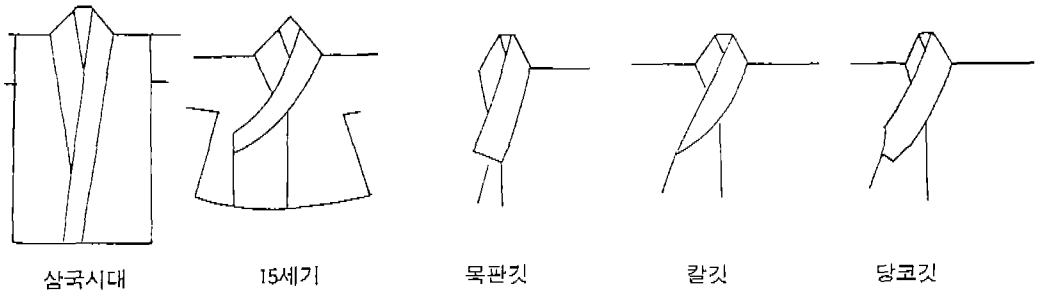
(그림 5) 저고리 소매의 형태 및 종류

3) 옷깃(領)의 종류

저고리 옷깃부분의 구성은 삼국시대의 선(襟)과, 15세기저고리의 옷깃으로 대별되었다. 선은 고대에서 밑도런선까지의 앞여밈을, 옷깃은 고대에서 섰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앞을 여며주고있다. 15세기저고리의 옷깃은 고려시대의 유물인 문수사의 백저포(白紵袍)의 옷깃과 동일형으로 출토 저고리에 나타난 옷깃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출토

저고리의 옷깃은 그 끝선이 목판깃·칼깃·당코깃과 같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루고있다.

16·17세기 저고리의 옷깃은 형태에 따라 나무판형과 유사한 목판깃, 목판깃에서 전개된 것으로 앞부분이 곡선으로 깎여진 당코깃, 옷깃의 형태가 칼의 형태와 같은 칼깃이 있다. 또한 이러한 옷깃의 형태는 저고리의 종류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그림 6) 저고리 옷깃의 형태와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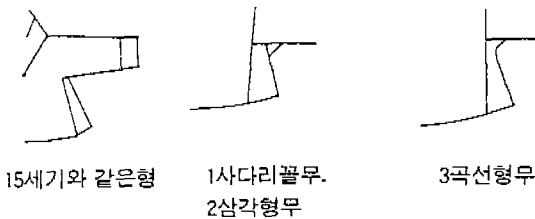
4) 무(襦)의 종류

저고리의 무는 15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출토저고리는 세가지 형태로 (그림 7)과 같이 다양하다. 1형은 사다리꼴무로, 2형은 삼각형무, 3형은 거드랑이에서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곡선형무라 구분한다. 거드랑이의 무는 직선의 길과 소매사이의 터지는 것을 막는 실용성과 활동성을 무가하는 역할⁷⁾을 하며, 더 나아가 직선구성 저고리의 곡선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색(色)

저고리의 배색은 전체가 동색인 경우, 일부부위 깃동·옷깃·섷·무 등에 異色 배색되는 경우가 있다. 색의 배색은 목판깃저고리 1-1·1-2형과 칼깃저고리는 同色으로 배색되고, 목판깃저고리 1-3형과 일부 당코깃저고리는 異色으로 배색되었다.

이와같이 16·17세기 출토저고리의 구성요소를 살펴 본 결과와 같은 것이다. 하나는 16·17세기 저고리의 구성요소(표 6)는 옷깃·길·소매·섷·부·옷고름·동정 등으로 삼국시대나 현대저고리보다도 훨씬 다양한 점과 그 다음은 여러 형태의 각 구성요소는 저고리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점으로 이는 다른 시기의 저고리와는 구별되는 이 시기 저고리의 특성으로써 그 구조가 길(胴)과 소매의 기본구조외에도 옷깃·섷·무·깃동 등의 구성으로 오늘날 저고리와는 구성적(형태적) 관



(그림 7) 무의 형태와 종류

7) 김동욱, 앞글. 107.

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은 16·17 세기가 오늘날과 같은 저고리로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전환시기임을 의미한다.

3. 저고리의 유형분류

16·17세기 출토저고리에 나타나는 목판깃저고리·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가 그 구성요소간에 어떠한 유형상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표 7> 출토저고리의 구성요소별 유형분류

	출토지	저고리	색 상					옷깃의 형태			길				소 매		무의 형태			옆 트 임		크 기		
			소색	상색	두 록 색	갈색	청색	목판 깃	칼 깃	당코 깃	직선 형	사선 형	직선 형	사선 형	사 다 리	삼 각 폴	곡선 형	유	무	길이	화장	고대		
목 판 깃 저 고 리 1 형	전박장군	갈색목단 겹당저고리			○			○			○		○							○	○	68	80	19
	전박장군	갈색운문단 저고리				○		○			○		○							○	○	65	76.5	19
	전박장군	아청색소화당 초문저고리			○			○												○	○	67	68	19
	정응두	저고리12				○		○			○		○							○	○			
	정응두	저고리13		○				○			○		○							○	○	76	76	
목 판 깃 저 고 리 2 형	정응두	저고리14					○	○			○		○							○	○	77	90	20
	정응두	저고리15		○				○			○		○							○	○	81	100	20
	구례손씨	남명주 숨저고리						○	○			○		○						○	○			
	홍계강	저고리1			○			○			○		○							○	○	66	80	20
	홍계강	저고리2			○			○			○		○							○	○	59	69	19
	홍계강	저고리3						○			○		○							○	○	59	72	19
	이언웅	저고리6	○					○			○		○							○	○	64	81	18
	이언웅	저고리7		○				○			○		○							○	○	67	75	20
	이언웅	저고리8		○				○			○		○							○	○	68	88	19
	이언웅	저고리9						○			○		○							○	○			
	이언웅	저고리10					○		○			○		○						○	○	69	90	
	이언웅	저고리11		○				○			○		○							○	○	75	92	19
	이언웅	저고리12					○		○			○		○						○	○	75	88	18
	이언웅	저고리13		○				○			○		○							○	○	76	91	19
이언웅	저고리14		○				○			○		○							○	○	76	91	19	
목 판 깃	순천김씨	갈색저고리				○		○			○		○							○	○	50	66	20
	순천김씨	갈색저고리				○		○			○		○							○	○	49	69	18
	안동김씨	접삼수회장 저고리1			○			○			○		○							○	○			
	안동김씨	접삼수회장 저고리2			○			○			○		○							○	○			
	전박장군	소색명주삼수 저고리	○					○			○		○							○	○	48.5	69	22
	정응두	저고리1		○				○			○		○							○	○	45	71	20
	정응두	저고리2			○			○			○		○							○	○	50	68.5	19
	정응두	저고리3			○			○			○		○							○	○	62	70	20
정응두	저고리4파손				○		○			○		○							○	○	50	70		
정응두	저고리5		○				○			○		○							○	○	63	106	19	

저 고 리 3 형	정응두	저고리6		○				○		○	○			○					
	정응두	저고리7		○				○		○	○			○					
	정응두	저고리8		○				○		○	○			○	68	102	21		
	정응두	저고리9					○	○		○	○			○					
	정응두	저고리10					○	○		○	○			○	71	78	18		
	이언용	저고리1		○				○		○	○			○	52	70	18		
	이언용	저고리2				○		○		○	○			○	55	70	19		
	이언용	저고리3		○				○		○	○			○	56	73	19		
	이언용	저고리5과손				○		○		○	○			○	58	68	20		
	문익신	명주잔누비 저고리		○				○		○	○			○	49	87	16		
	문익신	명주누비회장 저고리						○			○	○		○	53	76.5	18		
문익신	무명솜저고리						○		○	○			○	56	76.5	18			
목 판 깃 저 고 리 4 형	진주하씨	겹저고리					○		○	○			○	63.5	73.5	18			
	진주하씨	모시적삼					○		○	○			○					22	
	진주하씨	무명겹저고리					○		○		○		○					22	
	진주하씨	무명적삼1					○		○	○			○					21	
	진주하씨	무명적삼2					○		○	○			○					18	
	진주하씨	무명적삼3					○		○	○			○					21	
	진주하씨	무명적삼4					○		○	○			○					21	
	진주하씨	무명적삼5					○		○	○			○					20	
	진주하씨	무명적삼6					○		○	○			○					19	
갈 깃 저 고 리	구례손씨	소색명주 저고리	○				○		○				○	53	93	20			
	구례손씨	남색무명 저고리				○		○		○			○	56		21			
	전박장군	백색무명겹유 저고리					○		○	○			○	52	74	18			
	전박장군	백색무명겹유 저고리					○		○	○			○	52	83.5	18.5			
	전박장군	백색무명겹저 고리	○				○		○	○			○						
	김위	삼베적삼	○				○		○	○			○	60	69	20			
	전박장군	소색무명적삼	○				○		○	○			○	53	67	16			
	전박장군	백색무명적삼	○				○		○	○			○	54	115	17.5			
	홍우협	소색명주누비 옆트이저고리	○				○		○	○			○	73	90	22			
	홍우협	소색명주홀 저고리	○				○		○	○			○	54	110	23			
당 코	정응두	저고리5		○				○					○	63	106	19			
	정응두	저고리6		○				○					○						
	정응두	저고리8		○				○					○	68	102	21			
	구례손씨	갈색솜저고리				○		○	○				○	46	73.5	18			
	전박장군	갈색명주겹 저고리				○		○	○				○	49	82	18			
	전박장군	갈색명주겹유 저고리				○		○	○				○	55	84	19			
	전박장군	백색명주 저고리	○					○	○				○	48	79	19			
	양천허씨	삼회장저고리						○	○	○			○	45.7	70.5	20			

깃
저
고
리

임이 없는 반면 겨드랑이의 무가 2개로 사다리꼴 무와 삼각형무이며, 옷깃·끝동·شط·무가 異色이다. 또한 옷의 길이에 의해서 목판깃저고리1-1형은 길이가 60~70cm로 유사한 길이인 반면, 목

판깃저고리1-3형은 40~50cm전후와 60~70cm전후의 두 길이의 저고리가 나타난다.

저고리의 옷깃별 종류에 따른 각 구성요소의 관련성은 <표 8·9>와 같다. 즉

<표 8> 목판깃저고리의 분류

	類 似 性		類 異 性			
	깃의 형태	구성	길이	무	트임	세부배색
목판깃저고리1-1형	목판깃	겹	長	1	有	同色
목판깃저고리1-2형	목판깃	겹	長	1	無	同色
목판깃저고리1-3형	목판깃	겹	長·短	2	無	異色
목판깃저고리1-4형	목판깃	홀·겹	短	無	無	同色

<표 9> 칼깃과 당코깃저고리의 분류

	類 似 性					類 異 性	
	구 성	트 임	무	깃의 형태	소매의 형태	길 이	옷깃의 형태
칼깃저고리	홀·겹	有·無	有·無	사선	사선	長·短	칼 깃
당코깃저고리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短	당코깃

<표 9>에 의하면 당코깃은 목판깃에서 전개되었으나 구성요소는 칼깃저고리와 유사하며 그 특징상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들 수 있다. 1) 홑겹과 겹, 2) 트임의 有·無, 3) 길의 직선과 사선구성, 4) 직선소매와 사선소매의 공존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그 유형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기적으로 16세기후반까지 많이 출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저고리 유물의 수량이 목판깃·칼깃·당코깃의 순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 16·17세기에는 목판깃저고리가 주로 착용되었으나 칼깃과 당코깃저고리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면서 선호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18세기전후의 저고리의 종류가 당코깃저고리인 것을 유희경⁸⁾·김문자⁹⁾의 선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저고리의 길이에 있어서 칼깃저고리는 40~50cm전후의 길이와 60~

70cm전후의 두가지가 나타나지만 당코깃저고리는 40~50cm전후의 길이만 나타난다.

Ⅲ. 16·17세기 저고리의 특징

저고리의 구성요소의 종류와 형태를 분석하여 구성요소에 의한 16·17세기 저고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저고리의 구성요소의 유형을 통하여 시대적 변천과 그 특징을 알 수 있었다.

1. 유형적 특징

저고리는 시대에 따라 그 구성요소가 다른 것으로 16·17세기를 중심으로 시대가 올라갈수록 그 구성요소가 단순하며, 그 형태 역시 단일형이다.

8) 유희경, '赤古里와 襖衣類', 『韓國의 服飾』, 1983, 207.

9) 김문자, 앞글.

그러나 16·17세기 출토저고리는 구성요소뿐 아니라 각 요소의 형태 역시 다양하여 이에 의한 저고리유형 역시 다양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출토복식에 의한 16·17세기 저고리의 구성요소 가운데 옷깃의 형태에 따라 목판깃저고리·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의 세유형이 있으며 각각 유형에 여러형태가 있으며 그 저고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목판깃저고리

저고리의 기본요소에서 옷깃은 목판깃이며, 길은 직선구성이고, 소매는 진동과 수구가 크기에서 유사한 직선소매이며, 세부구성요소로 썸·무가 부가되어있다. 구성요소의 형태에 따라 1-1·2·3·4형의 네형태로 분류된다.

목판깃저고리1-1형은 목판깃과 직선의 길·소매와 무가 1개이며 옆트임이 있고, 색의 배색에서 同色이며, 길이는 60~70cm이다. 목판깃저고리1-2형은 목판깃·직선의 길과 소매·1개의 곡선형 무·동색배색이며, 길이는 60~70cm이다. 목판깃저고리1-3형은 목판깃·직선의 길과 소매·사다리꼴과 삼각형의 2개의 무·그리고 옷깃·끝동·썸·무 등에서 異色 배색이나 다른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길이는 40~50cm, 60~70cm의 두 종류가 있다.

2) 칼깃저고리

저고리의 옷깃이 칼깃이며, 길은 대부분 사선형이나 직선의 변형도 있다. 소매는 진동과 수구의 크기가 다른 사선소매이다. 세부구성요소로 썸이 부가되었으며, 트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의복의 전체 색상이 素色(염색이 되지 않은 색을 의미함) 1가지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 칼깃은 表衣중창의·직령·도포의 옷깃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표의의 옷깃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추정한다. 또한 색상에 있어서 염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表衣 혹은 의례적인 의복보다는 일상용이거나 받침옷의 역할을 한 의복으로 생각한다. 저고리의

길이는 40~50cm·60~70cm의 두 종류가 있다.

3) 당코깃저고리

당코깃저고리는 길은 직선과 사선이 혼용되고 있으며, 소매는 사선소매이며, 세부 구성요소로 썸이 부가되었으며, 옷깃·끝동부위에 異色을 사용하고 있다. 길이는 40~50cm로 통일되어 있다.

옷깃의 형태에 따른 목판깃·칼깃·당코깃의 각 저고리에서도 길과 소매의 형태에 의한 여러유형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6·17세기 이후 조선후기, 말기시대의 저고리는 다시 그 구성요소가 옷깃·길·소매·결마기·웃고름 등으로 적어지며, 각 구성요소의 형태에 있어서도 단일형으로 통일된다. 16·17세기 저고리의 유형상 특징은 옷깃에 따른 다양한 저고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구성요소의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고리의 새로운 형태가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시대의 길·소매·선(襟)의 기본저고리가 조선말기 더 나아가 한국적 현대 저고리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는 시기적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저고리의 옷깃·길·소매선의 특징

16·17세기 저고리는 구성요소 가운데 옷깃·길·소매의 세요소의 직선과 곡선적 성격을 살펴보면 직선형 옷깃인 목판깃의 길과 소매는 직선형이며, 곡선형 옷깃인 칼깃과 당코깃의 길과 소매는 직선과 곡선이 혼용되지만 곡선형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로 이 시기가 저고리의 구성선에서 직선에서 곡선으로 전환하는 시기라는 것이며, 둘째로는 저고리가 그 구성선에 있어서 옷깃과 길, 소매의 형태가 동일형으로 직선적인 것 혹은 곡선적인 것으로 통일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성별(性別)저고리의 특징

목판깃저고리1-3형과 칼깃저고리는 동형이면서 길이에서 40~50cm·60~70cm의 두 종류가 있으나, 목판깃저고리1-2형은 60~70cm, 당코깃저고리는 40~50cm의 유사한 한 종류의 저고리만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남·녀가 함께 착용한 것으로 그 차이는 신체적 크기의 차이이며, 후자는 남성·여성 각 전용의 저고리로 추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 연구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결 언

이상과 같이 저고리는 시대에 따라 특정유형과 그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통한 시대구분이 가능하며, 출토복식은 현존하는 과거의 실물자료로써 그 유형과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출토복식을 통한 16·17세기 저고리의 유형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은 실물자료가 없는 그 이전시대의 복식이해 및 추정의 근거가 되는 반면 그 이후시기로의 전개를 밝혀주는 교량적 역할로 시대적 변천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출토 저고리의 형태와 추정연대에 의한 저고리 유형의 분포는 목판깃저고리는 16세기이전부터 17세기초까지, 칼깃저고리는 16세기초부터 17세기후반까지, 당코깃저고리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후반까지 출토되고 있어 각 저고리 착용시기와 형성시기가 목판깃저고리·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6세기후반에서 17세기전반 사회에서 이 세 유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 시기가 저고리의 유형이 교체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으며, 목판깃의 경우는 17세기에, 칼깃저고리와 당코깃저고리는 16세기후반에 각 유형의 변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유형의 형성 및 쇠퇴

의 과도기적인 시기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16·17세기저고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17세기 저고리는 유형에서 다양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화는 각 구성요소의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저고리의 종류와 구성요소의 다양화는 이 시기가 이전의 삼국시대의 기본저고리구성에서 이후의 저고리로 발전·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던 때라고 본다.

둘째, 16·17세기 저고리에서는 목판깃저고리의 직선적 저고리와 칼깃과 당코깃의 곡선적 저고리가 공존하고 있다. 옷깃에 따라 세부구성요소의 형태도 직선형과 곡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고리가 16·17세기 이전 직선형 저고리에서 16·17세기 이후 곡선형 저고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고리에서 곡선화가 처음으로 시도되던 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목판깃저고리1-3형·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의 길이가 40~50cm전후로 유사한 것으로 시대적으로 저고리의 길이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동형저고리에서의 크기의 차이를 남·녀의 신체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때 목판깃저고리1-3형과 칼깃저고리는 남·녀공용저고리로 목판깃저고리1-2형과 당코깃저고리는 남·녀의 전용저고리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시기별로 목판깃·칼깃·당코깃의 순으로 볼 때 여자의 저고리가 당코깃저고리로 전환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하나의 산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6·17세기 저고리의 형태의 多樣化·曲線化·性別化 등의 변화는 복식변천의 원리중 복식의 환경순응의 법칙(Principle of Adaptation to Environment)이론에서 볼 때 조선사회에 있어서 15세기 사회구조가 17세기이후의 전형적인 조선적 사회구조로 변화하는 시기이며, 미시적으로

는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사회변화의 시기적 특성을 지닌 16세기후반 17세기¹⁰⁾의 사회환경변화를 복식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료(史料)와 타 의복간의 연관관계보다는 출토유의를 통한 고고학적 분류의 실물중심이었다. 이는 문헌자료의 한계로 우선적으로 실물중심의 이해 이후에 관련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 및 타의복과의 연계를 앞으로 보충하겠다.

참고문헌

1.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2.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亞世亞文化社, 1971.
3.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6.
4.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5. 樂學軌範.
6. 金元龍, 古墳壁畫.
7. 고복남, 赤古리의 變遷樣式, 月刊文化社 117호, 月刊文化財社, 1982.
8. 高福男, '出土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9. 金文子, '朝鮮時代 저고리 깃에 대한 研究', "服飾5호", 1983.
10. 白錦鉉, '옷깃과 옷섶의 形態變化에 대한 研究', "服飾6호", 1983.
11. 金榮子, '朝鮮時代 여자 저고리소매에 관한 研究', "여성문제연구소" 13.
12. 金東旭, '任亂前後 出土服飾', "任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 博物館 報告書, 1983.
13. 安燾菡의 3인, '重要民俗資料 제112호 장흥임씨 壽衣類의 保存處理', "保存科學研究" 제6집, 1985.
14. 沈富子, 全惠淑. '文益新墓의 出土服飾', "服飾10호", 1986.
15. 金美子, 柳喜卿. '出土服飾', "진주하씨출토문헌과 복식보고서", 건들바우박물관 관, 1991.
16.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17. 文化財管理局,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80호.
18. 文化財管理局,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82호.
19. 文化財管理局,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83호.
20. 文化財管理局,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 84호.
21. 韓國文化財保護協會, 韓國의 服飾, 文化財管理局, 1982.
22. 梨大衣類織物學科, 忠北大學校 博物館所藏遺物實測圖, 1980.
23. 고복남, '朝鮮中期的 服飾變遷에 대한 要因', "淑大論文集 25집", 460, 1984.
24. 유희경, '赤古리 의 襪衣類', "韓國의 服飾", 207, 1983.
25. 高英津, '16세기후반 喪祭禮書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 14호" 30, 서울大學校 圖書館,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chěchori pattern of Korea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is study is on the classification of Chěchori forms in Korea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by investigating the patterns and construction of excavated clotho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Korean Chěchori in the period are as follow.

1. The Chěchori shows forms. The diversity is accomplished by varing the components pattern of Chěchori, such as collar, sleeve, and

bodice.

The diverification in Chěchori pattern represents an attempt to advance the simple Chěchori pattern in the 4th and 5th Centuries to the mordern one.

2. Mokpankit (목판깃) has a straight construction line but Kalkit(칼깃) · Dangkokit(당코깃) have a curved one. This suggests a transformation in the construction line of Chěchori.

3. Among chěchori pattern, some Mokpankit and Kalkit Chěchori's show two kinds in size : 40~50cm and 60~70cm. However, Dangkokit

chěchori has only one size of 40~50cm. Considering the differdnce in body size between man and woman, Mokpankit Chěchori and Kalkit Chěchori are jueged to be for man and woman commonly, and Dangkokit Chěchori is for woman only. After the period, woman wears only Dangkokit Chěchoei, which is thought to come from the sex discrimination.

Consequently on the viewpoint of Prinsiple of Adaptation to Environments, sforementioned facts prove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on the historical basis of costume.